

“가족과의 행복한 순간, 사진에 담아 드려요”

정읍시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동들 ‘소중한 우리 가족 추억 만들기’ 큰 호응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위기의 순간 혹은 건디기 힘든 어느 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담담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할나의 행복한 순간도 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의 즐겁고, 행복한 기억은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아닐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아동들의 꿈과 행복 실현을 지원하고 있는 정읍시 드림스타트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가족과의 소중한 한때를 사진으로 남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드림스타트에 따르면 ‘소중한 우리 가족 추억 만들기’가 바로 그것. 이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의 생일 등의 기념일을 남기고 싶을 때 드림스타트로 신청을 하면 연계된 사진관으로 안내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간 남편과 사별한 아내가 아이의 돌을 맞아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아이에 대한 사랑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겼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시설로 입소시키기 전 온가족이 사랑을 확인하고 아쉬움을 달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한 가족 간 사랑과 유대감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가족들이 행복한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서로 간 사랑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 드림스타트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 추억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사진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모든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따뜻한 관심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 등 관련 문의는 정읍시드림스타트(☎063.539-5543)에 하면 된다./정읍=김대환 기자

순창경찰서, 보안협력위 범죄피해자 위해 기부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와 순창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회장 유재만)는 지난 10일 정기회의를 맞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溫) 더하기 기금 1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온 더하기 기금이란 기업, 개인 등이 기부한 금액을 전 북적십자사를 통해 살인, 강도,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전북경찰청의 자체 특수사업이다.

순창서는 올해 협력단체 및 직원들의 온 더하기 기부금으로 관내 범죄피해자 3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김태형 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부를 해준 보안협력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가족처럼 돌보며,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서, 부서별 피해자보호관 지정 실질적 운영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하기 위해 해 지·파출소, 분야별로 피해자 보호관을 1명씩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보호관은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2차 피해 예방 총괄, 피해자 전담경찰관 연계 확인하는 등 기능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 김정은 순경은 “인권경찰로의 개혁을 위해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인권 보호가 필수이므로 부서별 피해자보호관들과 협업해 피해자보호에 더욱 더 힘 쓰겠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전직원은 물론 특히 중간관리자급에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 심리적 경제적 지원현황 등 피해자 보호지원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과정에 준하여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서, 이장단회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 전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11일 무주군 무주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장단 및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무주서는 이날 최근 덕지·삼거간 오두재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이곳을 통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차량점검, 지속운전, 과적 금지 등 주의를 당부하고, 여름 휴가철 대형교통사고 예방 방안,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무주읍내 일원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교통안전 반사경, 농기계 반사표지 스티커, 부채 등 홍보물품 배부와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윤종섭 경찰서장은 “교통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서, 손해보험협회와 안전모 전달식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와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관내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이륜차 안전모 씌우기 붐 조성을 위해 안전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노인층의 주 이동수단인 이륜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모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교통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모 등을 착용하고 도로를 운전하는 등 이륜차, 사륜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원경찰서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장 김양식은 “안전모의 무상 지급을 통해 남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짜장면 맛난데이 행사 개최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일 ‘사랑의 짜장면 맛난데이(DAY)’ 행사를 가졌다.

참좋은사람나눔봉사단(회장 광영상, 이하 봉사단)과 일품향(대표 이무영)에서 재능 기부로 참여한 행사에서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 250여명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

참좋은사람나눔봉사단과 일품향 이무영 사장은 매년 짜장면 무료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정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

관계자들은 “많은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 의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